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둘째는 연속성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고대학생운동이 군사독재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민주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동이 계승,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과학성이다. 고대학생운동은 60년대에는 관념적이고 원론적인 민주화투쟁에 헌신했지만, 70년대 이르서는 사회과학의 연구에 토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민주화투쟁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전통에 힘입어 당시 긴급조치7호사태에 관련된 학우들 중 상당수가 학생운동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으로 통일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헌신하였다.

이후 긴급조치9호라는 어두운 터널을 경유하면서도 도천수, 최봉영, 최규엽, 김관희, 이상진, 금승기, 박민서, 송재석 등은 노동현장에 직접 투신하여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노동운동을 하면서 민주노동조합의 탄생과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어서 1990년 초부터 시작된 통일운동의 대중화에도 헌신하게 된다.

이제 긴급조치7호, 긴급조치9호시기에 조국의 민주화에 헌신했던 우리들은 새로운 시기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설정하면서, 엄혹했던 70년대의 투쟁정신으로 계속해서 헌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감옥으로 또 감옥으로의 행진

긴조9호 시대 유신철폐 투쟁의 시작



박석운 서울대 법학과 73학번, 노동인권화관 소장(현),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현), 비정규노동자별칭폐와기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현)

긴급조치9호 시대는 5·22 데모로 시작되었다. 1975년 5월13일 독재자 박정희는 긴급조치 제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였다. 긴급조치9호는 개헌청원운동 등 헌법개정 관련 논의를 금지시키고, 학생의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는 한편,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도 금지시키고 또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시키는 것도 금지시키는 내용이었다. 또 이러한 긴급조치에 대해 비방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심지어 이러한 긴급조치 위반 내용을 전파하거나 보도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하면 영장없이 체포, 구금한 후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실로 긴급조치9호는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게 하여, 1인 영구집권을 구조화시킨 유신독재체제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었다.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내리도록 되어 있는, 헌법정지와 마찬가지로 비상조치를 일상시기에 일상적 법체계 속에 작동하도록 제도화시킨 긴조9호는 실제 박정희 사망시까지 약 4년 7개월 간 지속되었다. 만일 독재자 박정희가 심복에게 암살당하지 않고 계속 집권했다면 아마도 한참 동안 더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날 5월 14일에는 각 대학마다 월남패망(베트남 통일)을 그 당시 유신독재 정권은 그렇게 부르며 안보위기를 조장하였음)에 따른 안보궐기대회 명목으로 관제 데모가 개최되었다. 이어 5월 15일부터 1달여의 휴교 조치가 끝나고 각 대학은 개강했다.

그런데 개강 1주일만인 5월 22일에 서울대 교정에서 고(故) 김상진 열사 추모식을 겸한 대규모 학생 시위가 벌어졌다. 독재자 박정희는 긴급조치9호에 정면으로 치받는 5·22데모에 대해 가혹한 탄압을 자행했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른바 싹쓸이식 탄압을 자행하였는데, 당시 데모예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장, 서울시경국장, 관악경찰서장의 목이 일거에 날아갔고, 문교부장관과 서울대 총장의 목도 한꺼번에 날아갔다. 이후로 학교당국이나 경찰, 정보기관에서 학생데모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된 것은 물론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 운동권 내에 미친 영향이다. 그 전해인 1974년에 발생한 민청학련 사건(긴급조치4호)으로 이미 수백명의 학생운동가들이 학교에서 제적된 상태에서, 5·22사건으로 또다시 수많은 학생운동가들이 구속, 제적되어 많은 학내서클들이 거의 쑥대밭이 되다시피했다. 또 학내에 잔존한 학생운동의 역량도 극도로 축소되어 거의 뿌리까지 거덜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당시 데모에 단순 가담한 학생, 특히 대학에 입학한지 겨우 한달 정도 밖에 안된 1학년 학생들 까지도 제적, 구속시킨 데 대해(박원순 변호사도 이때 1학년 신분으로 제적되고 구속된 사례였다) 학교사회 구성원들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종전까지는 데모를 하더라도 데모를 사전에 준비한 주동자나 또는 고학년 학생 중 열성적인 데모 참가자들 정도만 제적하거나 구속한 데 반해, 긴급조치9호 아래에서는 데모에 단순가담한 학생들도 제적시키거나 감옥으로 보내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 중압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딱 질러 버리는 형국이라고나 할까. 독재정권 쪽에서 아예 데모 동조자들의 씨를 말리자는 심사로 덤벼 들었으니, 이제는 여간해서는 학생데모를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또 긴조9호 시대에는 각 대학 학생회가 모두 해산되고, 대신 각 학교마다 학도호국단이 설치되었는데, 그 간부들은 모두 학교당국이 임명하는 임명제로 운영되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그해 3월에 관악산으로 통합 이전한 상태였으나 아직 통합 캠퍼스로서의 새로운 대학 문화가 정착되기도 전이었다. 당시까지 부산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효과적으로 학생데모를 예방한 공로(?)로 일약 서울대 신입 총장이 된 윤천주 총장은, 부임하자마자

자 긴조9호식 대학운영 시스템 개조작업에 착수하였다. 당시 명분은 면학분위기 조성이라고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학생데모 예방과 관계되는 조치들이었다. 예를 들면, 당시까지 1시간씩 주어지던 점심시간을 없애버리고 그 시간에도 강의를 배치했다. 이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 쉬운 시간대를 없애버려서 데모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또 강의 출석체크도 대폭 강화되는가 하면, 당시까지는 수업도 3시간 짜리를 붙여서 강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2시간짜리 강의와 1시간짜리 강의로 나누어 시간배치를 했다. 이 또한 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가능한 한 없애려는 시도라고 판단되었다. 심지어는 학교 중앙도서관 앞 화단에 장미꽃나무를 새로 심는가 하면, 점심시간만 되면 호스를 대고 화단에 물을 뿌려 대기도 하였다. 이는 가능하면 학생들이 화단내 잔디밭에 모여 앉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특히 학내 사찰시스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화되었다. 대학본부는 교수들에게 지도반 학생들에 대한 학생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등 교수들을 통한 통제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 요원이 상주하면서 각 단대의 행정실 소속 직원과 기타 요원들로 입체적으로 짜여진 정보망을 통해 데모 주동을 할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사찰을 진행하였다. 당시 서울대 총책을 맡았던 '이진오'이라는 중정 요원은 밀착사찰을 워낙 유능하게 해 여러번씩이나 학생시위를 사전에 발각해내 악명이 높았다.

한편, 당시 유신독재 체제는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강고해 졌고, 야당과 언론은 물론 재야 민주화운동도 침묵 속에 빠져 드는 듯 하였다. 장발 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 등 사회통제도 한층 강화되었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좋아졌네, 좋아졌어' 나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운운의 소리만 들렸다. 심지어 건전가요 운운하며 음반에도 의무적으로 군가풍의 건전가요를 1편 이상씩 수록할 것을 강제하여 감성의 영역까지 철저히 통제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당시 학교에 그나마 얼마 남지 않았던 학생운동 활동가들 중에서 개중에는 운동을 포기하고 뿔뿔이 제 갈길로 가는 사람이 늘었다. 표면적으로는 긴 침묵의 시기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표면상의 침묵 속에서도 학생운동 진영내부에서는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었다. 한두 번의 학내 시위로 마치 철벽과도 같은 유신독재가 움직일 리 없는 상황이었다. 지속적인 끈질긴 운동을 위해서 이른바 '학생운동의 패러다임' 이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시작되

었다. 그것은 대략 세가지 정도의 목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우선, 활동가 양성 구조를 안정화하고 체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 목표가 되었다. 혹시 투쟁을 진행하더라도 활동가 재생신구조가 마비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책임 단위를 확실히 분리하는 것을 최우선 방침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기층 대중운동으로의 이전을 위한 준비 체계를 일상적으로 가동함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당시까지의 투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학생운동의 역량이나 학생 시위라는 투쟁방식 만으로는 유신독재 체제를 돌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약관화하였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점이 있다 치더라도 기층 대중이 의식화되어 투쟁의 주체로서 나서는 것이 투쟁승리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기층 대중 운동으로의 이전 준비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세 번째로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학생운동의 전통적 투쟁방식인 학생시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도 변함없는 운동 목표로 정해졌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설사 서울대에서 한 두 차례 유신반대와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학생시위가 성공한다 해도, 다른 대학이나 일반 사회로 확산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심지어 긴급조치9호 때문에 제도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학생 시위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활동가들마저 싸늘이 당해 당분간 세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그나마 역량이 어느정도 축적된 서울대에서 투쟁의 물꼬를 터서, 당시 침체된 유신독재 반대 투쟁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도 있었다. 그래서 대략 정리된 결론은 투쟁 방식에 있어서 종전과 같이 몰려 다니는 식의 일회성 시위투쟁 방식을 극복하고, 끈질지게 투쟁이 지속될 수 있는 이른바 '유격전 방식'의 투쟁 전술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5·22 데모 이후 몇 차례 데모 시도가 사전 발각되는 것을 보면서, 당시 서울대 학생운동권내에서는 보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강조되었다. 워낙 정보기관의 입체적 학원시찰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당시 몇가지 경구들이 후배들에게 전수되기도 하였다. '가까운 사람을 멀리 하라', '오리발을 끝까지', '확실한 사람 3, 4명이면 된다' 등등으로.

한편 해가 바뀌어 1976년 3월 1일, 윤보선 김대중 씨 등 야당 정치인들과 목사, 신부 등 성직자들 및 재야 인사들이 유신헌법의 개정과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명동 선언을 감

행한 결과 수십명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명동선언 이후 대학교 특히 서울대에서 호응 시위가 있어야 한다는 각종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 상황은 서울대 내에서 학생 시위를 시도할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투쟁역량을 모두 끌어 모으면 당시 두세번 정도는 학내 시위를 시도할 정도의 역량은 있었지만, 투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축적은 아직 덜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호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되었다.

그해 가을 축제 때에는 학내에서 우발적 사건이 있었고, 또 발각되지 않은 시위 미수 사건이 있었지만 별다른 시위 사건 없이 지나갔다. 그러다가 11월 들어 인권외교를 강조하던 카터가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또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박동선 뇌물사건이 밝혀지면서 박정권이 미국에서 불리는 상황이 되자 미국 현지 등 외신에서는 이 사건이 연일 대서특필되었지만, 국내에는 언론통제로 전혀 보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던 한미 정부사이에 미세하나마 간극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졸업시험도 이미 치른 상태인 11월 말경에 지금은 고인이 된 이범영 군이 같은 과 동기인 백계문 군과 나에게 함께 데모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어 각자의 신변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데모 준비에 들어 갔는데 시위 일자리는 12월 8일로 정했다. 거사 하루 전날 봉천 4거리 근처 임시 하숙집을 얻어 밤새 선언문 문안을 완성하고 이를 등사하였다. 선언문 문안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색깔론을 의식하여 최대한 논점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그때만 해도 타이프라이터도 등장하기 전이어서 기름종이에 철필로 글씨를 직접 긁어 넣고 이를 친구에게서 빌려 온 등사기로 유인하여 8절 시험지 앞뒷면에 빼곡히 등사했다. 드디어 새벽녘에 이르러서야 유인물 제작이 완료되었다. 새벽에 유인물을 나눠 갖고 각자의 서클 후배들에게 이를 분산시켜 학내로 반입시켰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에 5동 앞 광장에서 학기말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약 500여 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당시의 학생투쟁가요인 '정의가' 를 함께 부르고 '민주구국선언문' 을 낭독하였다. 약 15분쯤 지났을 무렵 소식을 듣고 쫓아 온 법대 교수들이 시위를 주도 하던 나의 양팔을 껴안고 붙들었다. 그 틈을 타서 기관원들이 우르르 덩벼들어 나를 대학본부로 강제 연행해갔고, 이어 도서관에서 학생을 모아 나온 이범영 군이 시위를 주도하다가 그 또한 현장에서 강제연행되었다. 백계문 군은 현장에서 투쟁하다가 이범영 군이 연행되는

사이에 피신했고 며칠 뒤에 체포되었다.

학기말시험 중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일 시위는 시위 규모를 키우기보다 기습 시위를 성공시킨다는 측면을 중시했고 시위는 애초의 계획대로 성공했고, 또 처음 계획한 대로 우리 세 사람 이외에 후배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으로 희희낙락하면서 수사에 응하였다. 또 보안은 완벽하게 지켜졌고 따라서 이후 우리는 흠가분한 마음으로 감옥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당시 중앙정보부 서울대 총책이었던 '이진오'이라는 기관원은 대학본부에 연행된 나에게 와서 "석운이 너는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석운이를 잘 안다"며 품을 잔뜩 잡고는 당시 재수하고 있던 동생 얘기 등 이것저것을 탐색해 보고 갔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소 중정요원으로 악명높았던 그를 내가 더 잘 알고 있었다. 혹시도 교내에서 멀리서라도 그가 보이면 그의 눈에 뜨일새라 껌싸게 옆길로 비켜갔기 때문에 그와 직접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그는 거짓으로 말하였던 것이다. 나중에 검찰로 송치되면서 이범영 군을 만났는데, 우리가 시위 현장에서 대학본부로 강제 연행되었을 당시 이진오이란 중정요원이 자기(이범영)를 따로 불러 나의 이름과 인적 사항에 대해 물어 보았다면서 그가 나를 모르더라고 재미있어 하였다(아마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상부에 보고할 때 모르는 학생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범영 군에게서 물어 봐서 알게 된 나의 인적 사항을 갖고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상부에 보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는 자기는 나를 잘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허세를 부리며 넘겨치기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그 반대였던 것이었다).

한편, 그날 유인물을 나누어 학내로 직접 반입시켰던 후배들과 또다른 후배들은 이후 2-3년간에 걸쳐 3, 4명씩 탐을 짜서 감옥으로, 또 감옥으로 행진해 들어 왔다. 그런 행진이 다른 대학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드디어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이를 계기로 박정희는 암살당하고 결국 유신체제와 긴조9호 시대는 그 막을 내리게 된다.

구속 이후 2년7개월에 달하는 감옥생활, 법정투쟁 그리고 사상초유의 소내투쟁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 그러나 벌써 30년이 경과되는 이 시점에서도 무거운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 당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혹한 탄압상황 하에서 투쟁하다가 투옥되어, (당시 다들 그렇게 얘기했듯이) '신세 조지게 된' 일부 사람들이, 철벽

같았던 당시 상황에 갇혀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해쳤고 아직도 고생하고 있다. 그간 이런저런 시답잖은 변명과 구실을 대면서, 그 분들을 미처 살피지 못하고 30년이나 시간이 흐른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루빨리 이런 부끄러움의 만분의 일이라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겪은 일을 한가지 사례로 증언하고자 한다. 1975년 4월 11일 고 김상진 열사께서 인혁당 관련 8인의 무고한 처형에 충격을 받고 "이것이 민족과 역사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스런 조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 이것이 영원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 것 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 저 지하에서 내 영혼에 눈이 뜨여 만족스런 웃음 속에 여러분의 진격을 지켜 보리라"며 할복 자결한 일과 관련 되는 것이다. 김상진 열사 추모식으로 추진된 5·22데모 이후 수많은 학생들이 제적되고 구속되는 등 싹쓸이를 당한 뒤였다. 아마도 5월 말경이었다고 기억된다. 아침에 학교로 터덜터덜 올라가니 중앙도서관 근처 여기저기에 사복형사들이 새까맣게 깔려 있었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오늘이 고 김상진 열사의 49재 날인데 혹시 데모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 않는가? 아 빨싸,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49재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에 식당에 앉아 있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12시 30분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천둥번개가 치는가 하면,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초여름 날씨에 약 15분 간에 걸쳐서 천둥번개와 우박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당시 더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있던 후배들의 무능에, 하늘도 저리 슬퍼 통곡한다며 모두들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했다.